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세상이 모든 일이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이 가르침을 우리는 매일 겪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심하였으며, 올 가을부터는 더욱 격론이 예상되는 현안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과 불교와의 관련이다. 이 문제가 2년 전 처음 불거졌을 때 불교계에서는 일부 신문을 제외하고 거의 침묵,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 개정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법안과 불교와의 관련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삼 제행무상의 가르침을 만나게 된다. 불교와는 관련이 없다고 여겼지만, 50년 전 일제 식민통치하의 불교의 행적이 다시금 우리의 문제로 등장한 것이 제행무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번에 국회에 상정될 개정안의 취지는 친일파에 대한 규정이 애매한 친일행위 진상규명법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에 열린우리당과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에서는 친일행위를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종교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식민통치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로 확대했다. 요컨대 불교계의 친일행위도 법의 심판



불자 세상보기

김 광 식
부천대 교수

친일과 제행무상

대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스님, 불교신자들은 불교계 친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모른다. 이는 기본적으로 불교계의 역사적 사실의 빈약에서 나온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불교의 교리 및 사상만 강조하고 근·현대불교를 황무지로 방치한 결과이다.

일제하 불교는 왜색불교니, 친일불교니, 몇몇 스님들은 친일파였다는 등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교계에 친일행위가 있었는가, 친일파로 지목될 대상 승려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다만 호국·민족불교 혹은 한용

운, 백용성 스님의 항일활동, 3·1 운동 때의 사찰 만세운동, 군자금 전달을 통한 불교의 민족운동 등 불교의 다양한 독립운동과는 거리가 있는 불교 친일에 대해서는 거북스러울 뿐이다. 친일행위라는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불교계에서도 민족, 불교, 독립운동을 배반한 행위는 있었다.

우선 불교의 '친일'의 내용을 대별하면 첫째, 일본불교의 신앙을 수용한 승려들이 있었다. 이들을 흔히 왜색승이라고 지칭한다. 둘째, 불교 근대화를 위하여 일본불교의 도움을 받고, 식민지불교 정책을 무조건 수용한 사제가 있었다. 셋

째, 불교계 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우호적인 승려가 다수 있었다. 넷째, 일부의 경우이지만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한 승려가 있었다. 이들은 일제에 부화뇌동하고, 식민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참했다. 다섯째, 일제 초기에는 항일투쟁에 나섰지만 일제 말기에는 친일노선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었다. 이 내용 전체를 친일행위, 친일파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불교계도 친일행위 진상규명법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불교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여 불교계의 친일과 연관된 역사를 재정비해야 한다. 불교계에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는 좋은 말이 있다. 즉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불교계의 친일문제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친일문제를 포함한 근대불교를 총체적으로 불교의 역사로 끌어안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으면 파사현정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근·현대불교에 대한 연구와 자료수집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호국불교, 민족불교를 칭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2001년, 총 318권 '한글대장경' 역경의 큰 불사를 마무리하고 이어 '한글 대장경 전산화'의 대작불사에 바쁜 걸음을 보이고 있는 동국대 역경원이 7월 21일로 출범 40주년을 맞았다.

현대 한국불교에서 경전의 한글화 작업은 불교대중화를 위한 가장 시급했던 과제였다. 그러나 연 평균 10억원 이상 요구되는 재정문제를 비롯하여 역경인재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 속에 진행돼 온 역경사업이었음에도 이 같은 성과를 보여 준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교문화가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라는 인식아래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지원이 있었으나 한때는 끊어져 난감했던 적이 있었고, 조계종 3대 역경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종단이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역경인력 문제도 그렇다. 불교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려면 적어도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한문은 물론 국어표현에도 밝아야 한다. 역경사의 수요 또

역경불사는 '내일의 희망'

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이 분야에 관심 두는 사람도 적다. 그동안 역경원 자체에서 역경연수생을 양성해가며 오늘에 이른 셈인데, 지금까지 이뤄 낸 성과들은 초대 역경원장이었던 윤하 스님에서 스님의 제자인 율운 스님으로 이어지는 4대에 걸친 큰스님들, 그리고 여러 뛰어난 학승들의 크나큰 원력의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역경원의 갈 길은 멀고도 바쁘다. 경전 한글화가 불교문화의 한문시대에서 한글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준 공적이 적지 않으나 '불교는 어렵다'는 문제는 아직도 남는다. 변화된 시대의 세대는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방식과 이해의 폭을 달리 한다. 시대가 받아들이는 표현방식을 채택, 불교를 쉽게 알리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대장경을 문학 등 여러 예술분야, 대중문화와 연계시키는 일도 한 방법이다.

불교 대중화와 함께 '세계화'라는 화두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적어도 한글화 작업과 함께 영역 등 세계에 '한국 불교'를 알리는 일 역시 급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종단의 적극적 후원과 불자들의 폭넓은 관심이 이 시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김장자(안문인)

'연대' 민영

심민섭



부처님 상품화



이렇게 들었다

바로 보기

정견(正見), 곧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일체법의 참다운 실상을 아는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탐욕, 노여움, 어리석음으로 흠여져 있는 마음을 가다듬고 맑고 고요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상응부경전>

이 세상은 불타는 집과도 같다고 했던가? 매일 일간지를 뒤지다 보면 여기저기 참으로 싸움도 많고 사건사고도 많다.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두고 제기되는 수많은 찬반 양론의 견해부터 수도이전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온갖 논쟁과 현상들,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분노 표출, 어려운 경제난을 빌미로 벌어지는 갖은 사기사건, 사고들... 한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도 수없이 많으며, "죽겠다, 살려달라, 거부한다, 불가하다, 억울하다" 등 무수한 목소리들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이런 혼란하고 복잡다난한 세상일수록 사회가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지혜의 한쪽마디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과연 수많은 소리중에 지혜의 목소리는 얼마나 되며, 어떤 소리를 지혜의 소리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부처님 말씀에 "정견은 물에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다"고 했다. 물이 흐려 있거나 끓고 있거나 이끼로 덮여 있다면 자기 얼굴을 비춰 봐도 똑바로 볼 수가 없듯이 탐욕, 노여움, 어리석음으로 흠여져 있는 마음으로는 참다운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를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세상을 보고 소리를 높이기전에 '탐욕으로 흐려있지 않은가', '노여움으로 들끓고 있지 않은가', '어리석음으로 덮여 있지 않은가' 내 마음부터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다. 내 마음속의 탐진치를 말끔히 거두기 위한 자기 성찰이 실상을 바로 보는 안목, 즉 정견을 열어주는 첫 단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배지선(대구주지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김성필 성원도전 회장에 관심을 얼마 전 공적자금 비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온 사회가 들쭉거렸다.

나 또한 공적자금을 이용한 호화주택 마련 등의 보도를 보면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뿐이었다. 만약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범죄에 대해 명백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보도내용에 대해 성원건설 김성필 전회장 측은 상당부분 외국·과장됐으며 연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호화주택'으로 알려진 연화사의 경우 스님들이 조용히 공부할 수 있도록 김 전회장이 직접 구입하여 통도사에 기증한 도심사찰이고, 체력 단련실은 사용하지도 않는 빈 공간이라는 것이다.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이 보도 내용의 당사자인 성원건설 김성필 전 회장이 그동안 사찰이나 유적지, 서민 임대 아파트를 무상으로 보시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불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이다.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 그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불교계에서 그동안 수많은 선행활동을 벌여온 김성필 전 회장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지난 과거를 보면 좋을 때는 발 벗고 나서서 챙기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의 일 어기듯 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다. 어려울 때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부처

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김성필 불자가 새로운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

유철상(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종교란 이름의 폭력 안 된다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예배에 반발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강의석 학생이 결국 제적됐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특정한 종교의식을 강요하고 있다는 데 분노를 감출 길이 없었다. 또한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관련학생을 제적시키는 일까지 지행되고 있다... 도대체 이 사회에 종교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만행이 저질러 있는지 모르겠다. 종교가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파행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다.

게다가 이번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나 살게 세인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 이는 한국의 전통종교이자 정신인 불교가 앞장서 이를 규탄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또 사건 해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종교적 관행·행위들을 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계 스스로 종립학교 및 관련기관들의 종교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이를 배척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교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닌, 모든 모서리들을 단정히 보호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

김민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존경받는 불자 국회의원 되길

17대 국회 정각회가 6년만에 재결성됐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갑다. 16대 국회에서는 정각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불자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다. 미진한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신행활동도 활발히 보이지 못했다. 이를 지켜본 불자들은 적지 않은 실망을 느꼈다. 그래서 더욱 17대 정각회 회원들에게 가는 기대가 큰 것인지도 모르겠다.

바라건대, 불자 국회의원들도 올바른 신행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정기적으로 사찰법회에 참석해 자신을 가다듬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또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겨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법법을 실천하고 수호하는데 직업과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부처님 법은 무차의 인과법이기 때문이다. 불자 국회의원도 부처님 법을 따르는 제자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조철규(경원도 춘천시 중앙로 27)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사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집합이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55cm)
 - 질차 : 신철 → 입급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直) (02)737-8881(代)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 지난 호 구입가격은 8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지난호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